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15

JCCT 2018-8-3

간호대학생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exploring historic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송미숙* , 배수진**

Mi-Sook Song*, Su-Jin Ba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상북도 C군 일개 대학에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 1.2학년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23일부터 12월 25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개방형 자기보고서식 성찰일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13]의 질적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하위주제, 10개의 주제, 그리고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 '독립운동의 흔적 앞에서 각인된 우리의 역사', '투영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끓어오르는 분노 그러나 남아 있는 희망', '반성 속에 애국심의 꽃이 피다' 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간호 대학생들이 독립운동역사에 대한 인식제고, 애국심 고취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에 대한 정책이 미비해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주요어 : 간호 대학생,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 내용분석, 질적 연구

Abstract This is a qualitative study conducted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exploring historic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The study's participants were 24 nursing students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who participated in a program to explore the historic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at a college in C County, Gyeongsangbuk-do.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December 23, 2017 to December 25, 2017. Th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in an open self-reporting proces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of Krippendorff[13].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exploring historic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19 sub-theme, 10 themes, and 4 categories were derived. The four categories are "Our History Represented in the wak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ootprint projected of an independent activist ", "Rage Boiling But Hope Remaining", "blooming patriotism through refl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n understanding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 in exploring the historical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and have shown that nursing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s, inspire patriotism and reflect on their attitude as nurses. In addition, institutional efforts and resources should be supported to address the lack of policies on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 sites for independence movements overseas, which are dependent on the private sector.

Key words : Nursing student, Exploring historic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Experienc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정회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정회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5월 16일, 수정완료일: 2018년 6월 26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7일

Received: May 16, 2018 / Revised: June 26, 2018

Accepted: July 17, 2018

*Corresponding Author: mychur@hanmail.net

Dept. of Nursing, Kyoungbuk Science College, Korea

1. 서 론

대한민국은 항일독립운동, 6·25전쟁,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등으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희생 위에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선조들의 지혜로운 나라사랑 정신을 후대의 대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본분이다[2]. 그러나 대학생들의 애국심 등 보훈의식 수준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보훈의식 수준이 매우 낮게 조사되어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 있다고 보고하였고[3], Jeong[4]의 대학생들의 호국보훈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설문에서 15%만이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전체의 80%는 관심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는 젊은 층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정부의 호국보훈 의식개선정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Kwon[5]의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국가 정체성 교육의 문제점 고찰에서 국가정체성은 보훈의식의 함양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시대착오적, 소모적, 좌우 이념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어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Ann[2]는 호국보훈을 위한 민·관·학·연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연구에서 선진국 진입문턱에서 호국정신 함양과 남북통일 의지가 선진국 진입의 관건임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미래 사회의 중심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에게 역사인식과 국가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대학생들의 나라사랑을 위한 체험학습현장답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대학생들의 나라사랑을 위한 체험학습, 현장답사를 통하여 나라를 찾고 지키기 위해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든 선열들의 위대한 여정을 후세에게 알리는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하여 독창성 및 현실성을 바탕으로 호국보훈의식과 함양이 보훈선진국 진입과 선진국으로 진입의 핵심임을 대학생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보훈의식 향상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보훈관련 인지적 태도, 정의적 행동적 태도 등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보훈관련 인지적 태도가 행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행동도 적극적임을 알 수 있고[6], 대학생들의 보훈의식 향상은 보훈행사 참여 등과 같은 보

훈 관련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7]. 국가보훈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과 희생정신의 계승, 발전,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등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효과적 전개해야 할 것이다[8],[9].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시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학창시절과는 다른 학습 방법이 대두되며,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문화를 접하는 이행기로 많은 고도의 인지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생 시기의 주도적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개발하는 방법은 교과활동보다는 교과 외 활동이 더욱 다양하고 범위가 넓을 것이다[10]. 이와 같은 시기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독립운동사적지 프로그램을 대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은 애국심을 고취하고 보훈의식을 제고하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훈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애국심·통일·안보의식 수준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7]. 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애국심, 통일 및 안보의식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특성별, 변수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훈교육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Ann[11]은 청소년의 보훈·안보 거버넌스 연계활동을 보훈·안보 인식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Jeong[4]의 대학생들의 호국보훈의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육대상에 대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홍보기법과 보훈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현충시설의 국민 친화적 활용방안 강구, 보훈행사의 민관공동주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Kim 등[6]의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훈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에서 인지적 태도, 정의적, 행동적 태도별로 인과관계와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Shin[12]의 대전·충남지역 대학생들의 보훈인식도와 관련요인 연구에서 보훈제도 인식도에 성별, 학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훈단체 호의도는 성별이, 유공자처우에 대한 인식도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 국가에 대한자긍심 인식도에서는 학년 별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보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보훈인식도, 보훈 관련요인, 보훈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 애국심·통일·안보 의식 수준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

구였고, 현장답사 체험학습 현장답사프로그램에 대한 양적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질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애국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 참여한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나 통찰을 얻기 위해 맥락을 상실하지 않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적연구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질문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역사적의식 제고와 애국심고취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독립운동사적지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상북도 C군에 소재하는 K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봉사동아리 바울아이회원으로서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주최한 2017년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 참여한 학생 31명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를 동의한 24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분포는 1학년 4명, 2학년 21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19-24로, 평균 22.8세이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21명, 남학생이 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이전에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 참여한 경험은 없었다.

3.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구지방보훈청이 주최한 2017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으로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배경 및 목표는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탐방하고 그 과정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애국심과 독립심에 대한 민족의 수난을 체험하고 독립운동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었다. 참여 학생은 대구지방보훈청과 협약을 맺고 보훈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바울아이’회원 중 참여를 희망한 학생 31명이 참여하였고 대구지방 보훈청의 담당자 2명과 지도교수 2명, 행사진행담당자 3명이 동행하였다. 탐방장소는 오사카에 있는 일본 최초의 한인 노동조합인 노동 동맹회 제2회 총회 개최지, 윤봉길 의사가 잡혀왔던 위수 형무소 자리인 히데요시 신사, 오사카성, 운동주 시비와 정지용 시비가 있는 교토 도시샤 대학, 임진왜란의 잔해인 귀무덤 미미즈카, 송몽규와 운동주 거주지터, 윤봉길의 유해를 암매장한 암장지적비, 윤봉길 의사 순국 기념비, 윤봉길 의사 순국지 등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23일부터 12월 25일까지였다. 연구시작 전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출한 성찰일지에 대한 비밀 유지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로 인한 보상은 없으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애국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며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성찰일지에는 참여자의 어떤 개인정보도 기재하는 난이 없으며 일련번호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성찰일지는 A4 용지 1매 분량으로 일정한 양식을 부여한 후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일지에 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책임자의 전자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성찰일지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라는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내용을 분석하는 자체가 목적인 체계적이고 객관적인방법인 Krippendorff[1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성찰일지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과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2)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문장이나 구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였다(significant statement).

3) 의미 있는 진술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이를 종합하였다 (sub-theme). 4) 종합된 내용을 개념화하였다 (theme). 5) 개념화된 내용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categorizing)

5. 연구자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 [14]의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적용되었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신빙성(Credibility)을 의미하며 참여자들의 성찰일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 참여자 두 명에게 읽도록 하여 자신들의 경험이 왜곡되지 않고 잘 기술되었는지를 확인받았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외의 간호 대학생에게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연구결과를 수긍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감사가능성이라고도 하며 연구진행의 전체과정에 걸친 일관성에 대한 기준이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과정을 Krippendorff[13]가 제시한 방법을 충실하게 따르며 자료수집부터 자료 분석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제시된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해 다른 연구자와 의견교환을 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교수와의 토론을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6.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대한 질적 연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특강 및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질적 세미나와 워크샵 등에 참여하여 질적내용분석 등 질적 연구 전반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질적 연구 논문게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대구지방보훈청과 협약을 맺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봉사동아리의 지도교수를 책임하면서 보훈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III.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하위주제, 10개의 주제, 그리고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 ‘독립운동의 흔적 앞에서 각인된 우리의 역사’, ‘투영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끓어 오르는 분노 그러나 남아있는 희망’, ‘반성 속에 애국심의 꽃이 피다’ 이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범주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범주 1. 독립운동의 흔적 앞에서 각인된 우리의 역사

‘독립운동의 흔적 앞에서 각인된 우리의 역사’범주는 ‘온몸으로 체득한 독립운동의 역사’,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전환된 역사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온몸으로 체득한 독립운동의 역사

‘온몸으로 체득한 독립운동의 역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며 배움’,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평소 책에서만 배웠던 독립운동역사의 현장을 직접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과 사실에 대해 이해하고 익히면서 독립운동역사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그 경험 속에서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혼자 책보며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발로 다니며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공부하니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잊고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참여자 1).

표. 1 간호대학생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

Table. 1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exploring historical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category	theme	sub-theme6
Our History Represented in the wak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one has personally experienced it.	Learning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ith direct contact
		A new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al views shifted from apathy to interest	Reminiscing the forgotten history in the fac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Having interest in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ootprint projected of an independent activist	Communication with Independent Activists	The appreciation of independent Activists
	An independent activist approaching with pain	Feeling the hearts of independent activists
		Pain in the thought of independent activists
Rage Boiling But Hope Remaining	historic sit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with no trace	A sense of shame at the disappearance of historic site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 indistinguishable historic sit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 neglected historic sit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 unmanaged historic sit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Feeling angry about discrimination of independent activists in Japan
	Those who are grateful	Feeling grateful for managing the historic sit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Be surprised at Japanese control of their independence movement historic sites
blooming patriotism through reflection	Self-reflection	Looking back at oneself
		Making a resolution
	present existence in the presence of independent activists	A life of oblivion
		A thing not to forget
	The trail of independence movement that one wants to see again	To want to participate again if there is a chance
		To want to recommend to the others

내가 몰랐던 우리 독립 운동가들의 흔적을 찾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들음으로써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졌다(참여자 2).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만 있었을 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오사카, 가나자와에서 '홍커우 의거'이후의 이야기를 그

장소에서 직접 들으며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역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운 운동주의 시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운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저항시를 쓰시다가 감옥에서 생체실험을 당해 옥사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운동주 시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었다. 그래서 이번 역사탐방을 가기 전에 동주라는 영화를 보고 갔는데 역시 '아는 것 만큼 보인다' 라고 확실히 운동주 시인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하고 뜻깊었다(참여자 5).

몰랐던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앉아서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더더욱 머리에 잘 들어오고 더 실감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참여자6).

수능에서도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하게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한국사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확일화 되고 정형화된 교육의 시험이 있는 한 한 두 줄 그리고 단어로 밖에 알 수 없었던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더군 다나 일본 내의 독립운동을 두 눈으로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투어였습니다(참여자 21).

2)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전환된 역사관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전환된 역사관’은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마주하며 잊혀진 역사를 상기하게 됨’, ‘독립운동의 역사에 흥미를 가지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독립운동사적지를 탐방하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독립운동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억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마주하며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역사에 대해 다시금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

고등학생 시절 한국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대학 입학 후 저는 역사에 대해 무관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사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참여자 12).

일제강점기와 임진왜란에 대해 초, 중, 고 시절에 배웠지만, 부끄러운 시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과서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고 입시에 초점을 맞춘 공부를 하다 보니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늘 아쉬운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 때의 시절에 대해 배운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해 더 알게 해주고 더 알아보고 싶게끔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가슴이 아픈 이야기

들로 도배되어 갔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참여자 13).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역사공부는 고등학교 때를 마지막으로 졸업하면서부터 점점 기억 속 저 멀리로 잊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탐방 준비하면서 영상과 블로그 설명들을 통해 배우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참여자 17).

범주 2. 투영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투영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범주는 ‘독립운동 인물과의 교감’, ‘통증으로 다가온 독립운동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독립운동 인물과의 교감

‘독립운동 인물과의 교감’은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헤아림’,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느낌’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운동주와 정지용의 시비 앞에서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공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참여자의 과거, 미래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운동주와 정지용의 시비 앞에서 교수님이 읽어주시는 시를 들을 때는 어려웠지만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해보니 얼마나 간절히 독립을 바라셨는지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1).

이번 역사 여행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선 조분들의 아픔과 피로움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분들이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13).

그 동안 내가 너무 철없이 살았구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시절 윤봉길 의사나 운동주 시인의 나이는 지금의 나와 형이거나 친구 정도의 나이이었을 텐데, 만약 내가 그 시절 사람이었다면, 독립 운동가였다면, 윤봉길 의사처럼 목숨을 바쳐가며 의거를 할 수 있었을까? 운동주 시인처럼 내 삶을 부끄러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다. 나에게 내

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해보는 의미가 되었다(참여자 9).

2) 통증으로 다가온 독립운동가

‘통증으로 다가온 독립운동가’는 ‘독립 운동가를 생각하며 아파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마주하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 들으면서 그들이 겪은 고생을 떠올리며 아픔을 경험하였다.

사적지를 하나하나 탐방하면서 이 먼 타국에서 고생하셨을 많은 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참여자 12).

범주 3. 끊어 오르는 분노 그러나 남아있는 희망

‘끊어 오르는 분노 그러나 남아있는 희망’ 범주는 ‘흔적 없는 독립운동 유적지’, ‘홀대당하는 독립운동 사유적지’, ‘고맙게도 마음써주는 사람들’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흔적 없는 독립운동 사적지

‘흔적 없는 독립운동 사적지’는 ‘독립운동 사적지가 없어져서 안타까움을 느낌’, ‘독립운동 사적지가 구분이 안 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일본 내 독립운동 사적지의 자취가 사라져 흔적도 볼 수 없게 되어 허탈함을 느꼈으며 보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 사적지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건축물로 인해 우리의 사적지가 잘 구분되지 않자 화가나기도하였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텐노지 공원처럼 독립 운동가들이 운동했던 곳이 없어지고 동물원이 세워지면서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더 안타까웠다.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누군가라도 기억을 할 텐데 흔적이 없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흔적들을 보존하고 잊혀지지 않게 하고 싶었다(참여자 2).

노동 동맹회 제2회 총회 개최지와 텐노지 공원은

일본의 불합리한 대우에 맞서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내었던 장소이다. 두 곳 모두 현재는 재정비 되어 옛 흔적이 모두 사라져 그 시절 감성을 느낄 수 없게 새로운 공간이 되어 많이 아쉬웠다(참여자 17).

지금은 흔적만 찾아볼 수 있거나 흔적조차 없는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웠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이렇게 묻혀졌다는게 참 마음이 아팠다(참여자 22).

오사카성에는 운동주 시인의 구금소 터가 있었는데 그곳은 현재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신사가 세워져 구금소 터라는 비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였고 또 귀무덤 불과 100M남짓한 거리에 신사가 있어 굉장히 분하고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참여자 12).

많은 유적지들이 그 곳이 독립 유적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조금 힘들었다(참여자 10).

2) 홀대당하는 독립운동 사적지

‘홀대당하는 독립운동 사적지’는 ‘독립운동 사적지가 관리되지 않음’, ‘일본 내에서 독립운동가의 차별을 느끼고 화가 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와 암장지적비가 있는 사적지를 탐방 후 윤봉길의사의 무덤이 쓰레기 처리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13년이나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잘 관리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분노가 끊어오름을 경험하였다. 또한 인접한 곳에 위치한 러시아포로들의 기념비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평등을 느끼고 독립운동사적지가 홀대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와 암장지적비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인데 암장지적비는 윤봉길의사가 사형을 당하시고 난 후 그곳에 묻히신 장소인데 이곳이 조각장,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에 방치되어 있어서 많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근처에 많은 기념비가 있었는데 러시아는 나라에서 러일 전쟁때 순국하신 분을 위해 제사지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비해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는 너무 행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실망스러웠다(참여자 17).

역사적으로 더 알고 싶고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엔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적지 중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를 가게 되었는데 일본 측에서 노다산 육군묘지에 인접한 가나자와시 공동묘지에 매장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알고 보니 쓰레기 처리장 부근으로 묘지에서 벗어난 곳, 행길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표시도 해두지 않아 사람들이 몇 십 년 동안 모르고 밟고 지나다녔다는 사실이 애통했습니다(참여자 20).

3) 고맙게도 마음써주는 사람들

‘고맙게도 마음써주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유적지를 관리해주는 분께 감사함’, ‘일본인들이 독립운동유적지를 관리하는 것에 놀람’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를 관리해주고 있는 재일동포인 박현택의 열정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독립운동 사적지를 개인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운동주, 정지용 시비가 일본의 대학에 위치하고 일본인들에 의해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는 한국인으로서 독립운동사적지에 관해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경험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안치소에서 관리해주시는 재일교포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낯선 땅에서 윤봉길 의사를 지켜주시고 그것에 사명감을 느끼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참여자 9).

탐방을 하다 보니 우리가 꼭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많은 장소들이 나라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위인들을 존경하는 재일교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시간과 비용을 자발적으로 투자해 지켜주고 계시는 재일 교포 분들에게 감사했다. 이 분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방치되어 사라지게 될 장소인데 국가도 이곳에 관심을 보이며 관리해주면 더 많은 국민, 후손들이 이 곳 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참여자 17).

일본의 도시샤 대학에 있는 운동주 시비와 정지용 시비는 일본의 학교에서 깨끗하게 관리 해 주고 계시고,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적비는 재일교포 분들과 양심

있는 일본인들의 모금활동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현재의 한국을 위해서 그 시대에 온몸 바쳐 투쟁을 하신 분들에 대해 재일교포 분들과 일본인들이 이렇게 그분들을 인정해주시고 보존을 위해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나는 한국인으로서 크게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왔단 사실이 부끄럽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참여자 3).

범주 4. 반성 속에 애국심의 꽃이 피다

‘반성 속에 애국심의 꽃이 피다’의 범주는 ‘자기성찰’, ‘독립 운동가들이 있어 지금 내가 있음’, ‘다시 보고 싶은 독립운동역사의 발자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자기성찰

‘자기성찰’은 ‘자기를 뒤돌아 봄’, ‘다짐을 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역사에 대한 무관심, 지식의 결여 등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것을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 자신을 비추주는 거울이 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애국심이 샘솟는 것을 느꼈으며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참여자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장차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가 이런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었다. 역사에 무관심한 내모습, 잘 알지 못하는 역사지식. 이러한 나의 모습에 나는 한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행사가 이러한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반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참여자 6).

그 동안 내가 너무 철없이 살았구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시절 윤봉길 의사나 운동주 시인의 나이는 지금의 나와 형이거나 친구 정도의 나이이었을 텐데, 만약 내가 그 시절 사람이었다면, 독립 운동가였다면, 윤봉길 의사처럼 목숨을 바쳐가며 의거를 할 수 있었을까? 운동주 시인처럼 내 삶을 부끄러워 할 수나

있었을까? 라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다. 나에게 내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해보는 의미가 되었다(참여자 9).

4박5일은 우리 역사의 전부를 알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역사에 대해 그리고 역사에 무지했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으로는 충분했다(참여자 24).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대항했던 분들과 똑같이 느끼는 없지만 그들이 희생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참여자 3).

이 투어로 인해 나는 독립운동가들 처럼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참여자 8).

일제시대에 겪었던 아픔보다 제가 앞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독립운동가들의 고통 보다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를 탐방하면서 일제의 해방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셨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었고 그동안 공부할 때 마다 과연 “내가 간호사라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포기할까?”라고 수 십 번을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해방을 위해 노력하셨을 독립운동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참여자 12).

2) 독립운동가들이 있어 지금 내가 있음

‘독립 운동가들이 있어 지금 내가 있음’은 ‘지금까지 잊고 살아옴’, ‘잊지 말아야 할 것’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잊고 살아왔음을 인식하였으며 현재의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역사의 발판위에 세워졌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교에 들어온 나는 이전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한국사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았다. 굳이 접할 기회를 찾자면 영화나 티비가 전부였다. 따로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 역사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나는 그동안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잊고 살아왔다(참여자 6).

삶에 지쳐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을 잘 가지지 못했는데 이런 계기로 인해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참여자 13).

나와 비슷한 나이 때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독립을 하여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될 것 같다(참여자 15).

일본 속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보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하여 힘써주신 분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참여자 4).

이 분들의 희생이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 속에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참여자 8).

3) 다시 보고 싶은 독립운동역사의 발자취

‘다시 보고 싶은 독립운동역사의 발자취’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음’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번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했으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였다.

조금씩 강해지는 저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6).

모두들 만족할 만한 행사였고 나 또한 만족했다. 앞으로도 다른 좋은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참여자 18).

이번 투어는 쉽게 오지 않을 기회이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즐거웠고 배워가는 것이 많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또 가고 싶다(참여자 24).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주위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참여자 7).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행사였습니다(참여자 12).

4박 5일 동안 화려한 일본의 겉면이 아닌 그 속에 스며든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밟아 볼 수 있었고 글로 보는 것 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오래 기억에 남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더욱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린학생이 아닌 성인들도 이런 탐방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참여자 17).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을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성찰일지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 간호 대학생들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경험은 19개의 하위주제, 10개의 주제, 그리고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4개의 범주는 ‘독립운동의 흔적 앞에서 각인된 우리의 역사’, ‘투영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끓어 오르는 분노 그러나 남아있는 희망’, ‘반성 속에 애국심의 꽃이 피다’ 이다.

범주 1 ‘독립운동의 흔적 앞에서 각인된 우리의 역사’영역에서 참여자들은 책으로만 공부했던 독립운동사적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감나는 학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독립운동의 흔적과 마주한 후 순국선열들의 치열했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들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또는 모르고 있던 정확하지 않은 역사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보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동안 무관심했던 독립운동의 역

사에 관해 관심이 일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 관한 질적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Park.[8]은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적 고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교수 방법은 학생의 이성적 성향보다는 감성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일원적 설명과 이해보다는 다원적 즉흥성, 감동과 공감의 선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거대담론보다는 생활주변의 작은 것에서 관심을 갖는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수동적 지식전수보다는 능동적 지식탐구에 대한 선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교육을 활용해 호국보훈영웅의 행위와 가치를 입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컨대 기념관의 전시시설, 조형물, 역사유적지, 문화예술영역의 상징물 등문화적 기억매체를 활용하는 것, 방송과 인터넷의 학습보조 자료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이 애국헌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담은 영화를 활용하는 것,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축제형식을 활용하는 것 등이 이런 교수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국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독립운동역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는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범주 2 ‘투영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영역에서 참여자들은 운동주, 정지용의 시비 앞에서 그들의 시를 낭송해보고 마치 그들의 시대로 돌아간 듯 한 느낌을 경험하였으며 독립 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며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경험하였다.

범주 3 ‘끓어오르는 분노 그러나 남아있는 희망’영역에서, 참여자들은 텐노지 공원처럼 독립 운동가들이 운동했던 곳이 없어지고 동물원이 세워지면서 흔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누군가라도 기억을 할 텐데 흔적이 없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며 그 흔적들을 보존하고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적비에서 역사의 어두움을 느꼈다. 인접한 곳의 러시아 포로들의 무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모습의 무덤에서 탄식을 하였으며 비통해했다. 연락주면 달려온다며 연락처를 암장지적비에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연락해보았더니 재일동포인 박현택이 한 걸음에 달려 나오셔서 아픈 역사에 대해 열정을 다해 설명해주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참여자들은 대가없이 독립운동 사적지를 관리해주고 있음 감사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샤 대학의 운동주, 정지용시비가 일본인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적이 아닌 감사한 사람으로 일본인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에 이제 국가가 나서야할 때라 사료된다.

범주 4 ‘반성 속에 애국심의 꽃이 피다’ 영역에서는 탐방 초기에 여행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하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나타내 주고 있다. 독립 운동가들과 동일 시 하면서 그들이 겪었을 고초, 아픔, 외로움에 대해 공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에게 4박5일의 일정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모두 알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사에 무지했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으로는 충분했다라고 느꼈다. 참여자들은 반성하며 다짐을 하였는데 그냥 지나쳤던 국내의 독립운동 사적지도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보고 다녀가면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참여자들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고, 대한민국이 그들의 희생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권할 것이라고 하였고 참여자 자신도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여자들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프로그램을 주최한 대구지방보훈청 담당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였다. Ann과 Kim[15]은 시민학생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 증진 방안 연구에서 특히 시민과 학생들에게 동시에 보훈가족의 소중한 나라사랑의 정신과 경험을 감동적으로 전달하여 보훈단체가 애국정신 함양의 중심적인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보훈단체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보훈에

대한 국민적 정체성 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공할 북한의 침략적 도발이 있더라도 보훈단체의 헌신적인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시민과 학생들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라를 위하여 애국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보훈단체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할 경우 대국민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애국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기 위해 위해서 겪어야 할 까다로운 교과과정과 국가고시의 압박감을 극복하는데[16]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간호 대학생들이 독립운동역사에 대한 인식제고, 애국심 고취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에 대한 정책이 미비해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자원이 뒷받침 되도록 하는 정책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독립운동사적지탐방경험을 알아보고자 질적내용분석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자료는 1.2학년 간호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개인 성찰일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경험은 ‘독립운동의 흔적 앞에서 각인된 우리의 역사’, ‘투영되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끓어오르는 분노 그러나 남아있는 희망’, ‘반성 속에 애국심의 꽃이 피다’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이 독립운동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게 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성숙된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깨웠음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까다로운 교과과정과 국가고시의 압박감을 극복하는데[16]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중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대학생들의 역사의식 제고와 애국심고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본 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므로 국가를 확대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하고,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S. Kang, H. K. Kim, A Problem Research and Present conditions about Institution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03), Vol. 1, No 1, pp. 59-92.
- [2] S. H. Ann, A Study on Governance System of Exemplary Veterans Organizations, NGO, Government, School & University, Research Center, Institute with a Focus on the Promotion Scheme of Patriotism Education.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17), Vol. 16, No 2, pp. 77-113.
- [3] T. Y. Kim,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Level of Veterans Related to Patriotism, Unification, and Security of University Students. (2014), *Crisisonomy*, Vol. 10, No 9, pp. 1-14.
- [4] H. Y. Jeong, A study on the Patriots & Veterans Consciousness of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04), Vol. 3, No 1, pp. 75-92.
- [5] K. S. Kwon, A study on the Issue of Education of National Identity for Enlargement of Interest of National Merit Reward.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13), Vol. 12, No 2, pp. 779-116.
- [6] Y. S. Kim, H. K. Moon, M. S. Yoon, D. H. Lim, A Corroborative Study on the way to increase Patriotic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MPVA Academic Paper, (2008), Vol. 10, pp. 1-39.
- [7] T. Y. Kim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Veterans Related to Security Crisis of University Students. *Crisisonomy.*(2013), Vol. 9, No 8, pp. 211-229.
- [8] H. C. Park. Considerations on the Ways to Promote Patriotism among the Young Generation.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05), Vol. 4, No 1, pp. 65-101.
- [9] Y. O. Yoo, Directions of Cultivating on the Patriotism of Young People.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2007), Vol. 10, No 1, pp.25-48.
- [10] J. S. Gong, B. K. Jhee, Determinants of Public Respect for Patriots and Veterans in Korea.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16), Vol. 15, No 2, pp. 61-89.
- [11] S. H. Ann, A Study on Activate device of Education for the Patriots and Veterans & National Security of the Youth.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11), Vol. 10, No 4, pp. 117-141.
- [12] E. S. Shin The Main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of Veterans.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17), Vol. 16, No 2, pp. 63-76.
- [13] Krippendorff, K. 2003.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14] Y. S. Lincoln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1985).
- [15] S .H Ann, T. Y. Kim A Study on the Promotion Scheme of Patriotism Education for Citizens and Students.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2016), Vol. 15, No 3, pp. 91-123.
- [16] J. A. Kim,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Employ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2017), Vol. 3, No. 4, pp.83-92.